

트럼프 “나토와 그린란드 미래 합의 틀 만들어”

나토총장 회담 후 협상 국면
무력사용 배제...관세 철회
골든돔·광물 관여도 논의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가 우려했던 군사력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유럽을 압박하는 용도로 부과하려고 한 관세마저 철회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일단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파르크 워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난 2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



그린란드 누크서 반(反)트럼프 시위.

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워터 사무총장을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JD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윙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

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란드와 관련해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한 합의 발표 이후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골든돔과 광물권(mineral rights)이 그린란드 관련 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극 전체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도 무엇인가를 협력할 것인데 이 건 안보와 관련됐다”면서 이 합의가 “영원히(forever)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도 합의에 동의하는 질문에 워터 총장이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난 우리가 나토와 싸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일본 자민당, ‘비자금’ 의원 37명 공천 다카이치, 2년전 공천 제외 아베파 중진에 입후보 허용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에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024년 10월 총선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던 옛 ‘아베파’ 중진들이 자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정치자금 문제가 선거 경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의원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중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2024년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당시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에게 공천장을 주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중북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행 자민당 집행부는 방침을 바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일본 정치권에는 이처럼 ‘대행’을 붙인 별도 보직이 많은 편이다.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을 대거 공천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옛 아베파를 비롯한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른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뒷돈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2023년 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졌고, 자민당은 39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를 제외한 파벌이 모두 해체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 노선 계승을 내걸고 옛 아베파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취임 이후 하기우다 의원을 자민당 간부로 등용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